단풍명소 내장사 불…대웅전 다 탔다

전기난로 발화 추정…인명피해는 없어

단풍 절정 시기 행락객 안타까움 더해

오색빛깔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의 내장사(內藏寺)에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새벽 2시10분께 내장사에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했고, 내장산 뒤편 야산으로도 불이 옮겨 붙어 165㎡가 탔다. 이번 화재로 대웅전 89㎡가 모두 불에 탔고 불화(佛畵) 3점과 불상 1점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장사 관리과장 권모(60)씨는 "이상신호가 감지돼 확인해달라는 보안업체의 연락을 받고 대웅전을 가봤는데, 불이 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찰에는 10여명의 스님들이 있었지만, 대웅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공무원 51명과 경찰 6명, 정읍시청 직원 5명 등 총 92명이 투입됐고, 물탱크 등 14대의 장비가 동원돼 2시간만에 불은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전기난로 인근에서 발화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판독했으나 그 시간대 대웅전에 출입했던 사람이 없고 내부에서 불이 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정확한 화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내장산의 명물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까지가 단풍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탐방객들은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니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을 찾았다는 이수자(49)씨는 "내장사의 중심 건물이 인재(人災)로 추정되는 불로 없어져 허무하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내장사(內藏寺)=정읍시 내장동(內藏洞)에 있는 호남의 5대 명산인 내장산에 자리 잡은 선운사(仙雲寺)의 말사로 오색단풍이 유명해 불자는 물론이고 행락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찰이다.

백제시대(636년)에 창건됐으며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거듭하다 지난 1938년에 현 위치에 지어졌다. 지난 31일 소실된 대웅전은 한국전쟁 때 내장사 대부분이 전소했을 때 함께 불탔다가 지난 195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대웅전은 지정 문화재는 아니다.

지난 31일 새벽 2시10분께 내장사에 불이나 대웅전이 전소되고 있다. 불은 내장산 뒤편 야산으로 옮겨 붙어 165㎡가 탔다. 〈정읍소방서 제공〉

'혁신 조선' '행복 대학'

조선대 새 표어

조선대학교는 새로운 대학 표어로 '혁신하는 조선, 행복한 대학'(Innovative Chosun, Happy University)을 선정했다.

지난 31일 조선대는 서재홍 신임총장 취임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 실현과 대학 내 화합과 혁신을 통한 행복한 대학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문안으로 '혁신하는 조선, 행복한 대학'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번 문안은 대학 내 공모로 교원·직원 등 모두 12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치의학과 대학 김흥중 교수의 제안이 당선됐다.

김수현 조선대 홍보팀장은 "새로운 대학 표어는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학내 구성원 단합은 물론 대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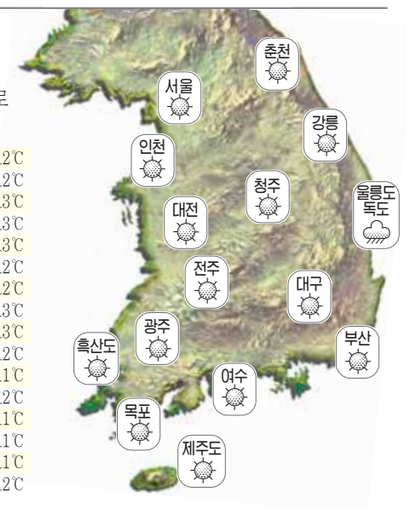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4분 해짐 17시 38분 달뜸 19시 11분 달짐 08시 51분

푸른가을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6/12℃
목 포	구름많음	9/12℃
여 수	맑음	8/13℃
나 주	맑음	3/13℃
완 도	맑음	9/13℃
구 례	맑음	3/12℃
강 진	맑음	4/12℃
해 남	맑음	6/13℃
장 흥	맑음	4/13℃
순 천	맑음	3/12℃
영 광	구름많음	4/11℃
진 도	맑음	9/12℃
전 주	맑음	5/11℃
군 산	맑음	6/11℃
남 원	맑음	2/11℃
흑산도	구름많음	10/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관심 보통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3:04 15:44	08:20 20:56
여수	10:12 22:07	03:40 16: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 씨						
최저/최고	4/14	4/16	8/14	8/14	7/14	7/15

비리 직원 '솜방망이' 징계 철회를

학부모연합, 광주교육청에 요구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적조작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결정〈본보 10월30일자 7면 보도〉 철회와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교학연은 성명에서 "시교육청이 채용비리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고 해놓고 가장 가벼운 정직과 감봉 처분을 했다"며 "그 어떤 곳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한숨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정미경 사무국장은 "장휘국 교육감이 법원에 보낸 탄원서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이중성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전 인사과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의결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특정 사립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치원 선착순 모집 못한다

재원생 학부모 입학생 추천도 금지

국내 유치원에서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 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 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 제재를 받는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내린 조치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착순 탓에 부모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내년부터 만3~5세 유아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권고안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어떤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

안재경 광주경찰청장

"모든 시책을 시민과 경찰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구의 어떤 이야기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난 30일 취임한 안재경(54·치안감) 광주경찰청장은 공정과 솔선수범, 현장 존중 등을 약속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초심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여러분의 맡은 역할과 업무에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그런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며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는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해 직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안 청장은 경찰관들에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더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하면서 맡고 있는 각자의 역할과 업무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사랑하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 청장은 장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경정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기 부천남부서장, 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서울지방청 보안부장,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도민 안전과 인권보호 최우선"

전석종 전남경찰청장

"경찰 패러다임이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으로 바뀐 만큼 안전과 인권을 양축으로 전남경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1일 공식 업무에 들어간 전석종(55·치안감)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각 시·군의 특징을 감안, 일선 경찰서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에 매진하겠다"며 "상하 동료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전 남 경 찰 이 되자"고 당부했다.

광주 출신인 전 청장은 광 주 일 고와 동국대 경찰행 정 학 과 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간부후보생 33기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2003년 총경으로 승진해 함평서장, 경찰청 정보4과장, 서울 혜화서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경무관 승진 후 경찰청 교통관리관, 경찰청 보안국장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복이라 가능합니다

2000만원 소액 투자로 월80만원의 수익

◀ 전복양식업의 전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전복사업의 시장은 약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사업으로 매년성장하는 거대 산업이며 주요 수산물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세계2위의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 완도 전복
2011년 기준 약3700여명의 어민이 연간 7,400톤을 생산 3,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전복 일류화 상품개발을 위해 생산관리 유통 판매, 수출, 홍보지원, 관리 지원등 총 14종 29개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전복 치폐 축양산업 이란?
새끼 전복을 부화시켜 일정기간 키운 후 양식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양식업의 기반 산업.

◀ (주)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은?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에 위치 약 33,000㎡(약 만여평) 1200개의 수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국내 최대 전복치폐축양사업을 하고있다.

◀ 투자방법
- 2000만원 소액투자(1수조)후 월80만원의 배당 발생.
- 계약기간 : 6개월 단기계약 (단, 계약 종료후 원금은 100%환급하며 계약 연장은 별도 협의.)
- 선착순 100수조에 한 하며 개인당 5수조에 한 함.
- 주1회 생산현장 방문 (희망자에 한함)

◀ 투자조견표

구 분	1개월분	6개월분
2,000만원	월 80만원	총 480만원
4,000만원	월 160만원	총 960만원
6,000만원	월 240만원	총 1,440만원

◀ 신청계좌
■ 신 청 금 : 100만원
■ 예 금 주 : (주)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9-716801
※ 미계약시 신청금은 반환 됩니다.

※미인수산영어조합의 영어조합설립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한 제도적기반으로 수산업법에 저촉 받습니다.

문의 전화 062-368-8100

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젊은 남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젊은 남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젊은 남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젊은 남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쭉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 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김영삼원장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20호 [광고]